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에스라 하셨나요? 행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3. 교회 주보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새롭게 시작한 제자 양육 제3과정(매주 금요일 저녁 8시)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5. 9월 21일 토요일 니카라과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6. 교우소식

윤하영(김종원) 자매 부모님(윤수찬/강선옥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10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7. 지난 주 헌금(9/1,8)

십일조/2,110 예배/40 감사/340 계/2,490

9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조은영(1) 박래석(8)	한정임(15) 한규철(22) 김정신(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에스라 운동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행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6-7절

- > 뿌리를 박으라
- > 세움을 받으라
- > 굳게 서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일 예 배 2024년 9월 15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찬송가 15(신) 55(구)

*성시 교독 /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오 신실하신 주 / 찬송가 393(신) 447(구)

기도 / 한정임 권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18장 28-40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좁은 길에 서 있는 주님 / 박화신 목사

찬송 / 이 세상 끝날까지 / 찬송가 447(신) 448(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 교 요 약

1.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훈 -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집중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중심을 잡으면 놀라운 파장의 힘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대속의 사역은 그 명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였습니다.
3. 구원자로서의 영광의 좁은 길의 현실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였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Tel) 630.673.9207

생명샘에스라부흥운동

기도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서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참 아름다워라 / 찬송가 478(신) 78(구)

말씀 읽기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6절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다고 증거하나요(1-2절)?
2. 또한 동일한 날에 각각 3시간씩(낮 사분의 일) 무엇을 하였습니까(3절)?
3. 레위 사람 몇몇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5절)?

정리하기 이 세대(욕심/자랑)를 본받지 않는 것이 부흥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결과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며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스라의 부흥 운동은 우리에게 금식을 통하여 부흥을 결심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을 통해 세대와 싸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하게 되는 귀한 부흥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 주기도문

골로새서 1장 10절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자신만만 해집니다. 그 찬양의 힘이 샘솟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귀한 부흥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낮 사분의 일은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부흥이라는 말은 내 안에 죽어 있는 귀한 것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을 원하시나요? 금식과 같은 작정이 필요하며 이방인과의 절교와 같은 세대(욕심)와의 절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그 때 가능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 / 요18장 1-27절

-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둘이 서로 묶인 ‘말씀의 은혜’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모습 그 자체이며, 은혜는 선물인 것을 감안한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마도 ‘말씀의 은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확한 뜻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아닌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간절한 유언과 같은 말이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성도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기(시편119:105-106)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고, 사용하는 비슷한 유형의 ‘말씀 중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 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 몸부림 쳐 봅니다.

1.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증거로 남긴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사실 양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만일 도서관에 꽂 차 있는 분량의 성경책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나요 ^^
2.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말씀은 증거합니다. 신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단 하나도 남김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3. 요한이 증거하는 죽음을 향한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 모습이었습니디. 그렇기에 더욱 큰 깨달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당시에 신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쉽게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셨고 그 죽음의 사랑과 복음을 설교하셨으며 또한 몸소 실천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감당하셨습니다.
4.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웅적인 신적 사역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삶을 따라하진 못한 것 같아요. 끝내는 주님을 배반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 “다른 것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은 죽음을 준비하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준비해야 실전에서 세대와 싸울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의 삶이 있습니다.